

KREI리porter 10월 경기지회 간담회 결과

1. 회의 개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및 회원 농가 견학(김영수)
- 일 시: 2019년 10월 24일(목) 11:30~15:00
- 장 소: 경기 포천시
- 참 석: 총 9명
 - 경기지회 리porter(8명): 김영수, 김용덕, 이기숙, 이현복, 임광혁, 임충빈, 장문호, 조남상
 - 연구원 관계자(1명): 김미리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30~13:00	간담회	지역의 농업·농촌 이슈 또는 현안
13:00~14:00	점심식사	향유
14:00~15:00	견학	회원 농가 견학(김영수)

2. 주요 내용

1)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 김영수: 1) 중소농가 농민들이 재배할 만한 소득 작물이 없고, 재배작물의 수확 후 판매가 어려우며, 인건비가 높아 농번기 농기계 구입이나 이용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2)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과 재해보장 제도가 미흡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필요작물 발굴 및 재배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3) 농업에 대한 미래도 현재도, 항상 불안한데 이는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보다는 정책적인 업무 수행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5) 작목별 재배방법 및 특성 등 쉽고 간단한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 6) 재배작목에 대한 투자자본에 대한 판매보장제도 개발이 필요하다. 7) 농기계 작업사업

을 확대하여 중소농가 및 노령 농가 지원이 필요하다. 8) 옛날에는 본인 인건비라도 벌자고 농사지었으나 요즘은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이니 안 짓는 게 돈을 번다고 생각된다. 나이도 들었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 이제는 농사를 줄이고 고된 일은 안 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가 농업에 관심이 없는 한 중소농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이 한국 농업의 현실임에 안타깝다.

- 이기숙: 1) 경기 과주지역은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지역 축산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농가 민원만 없기를 바라는 것 같다. 2) 농업인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농업·농촌의 일손 연령을 낮출 수 있고, 공동체 생활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3) 전통주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전 작물의 기본생산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이는 농촌의 자주적 자립에 필요한 국가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4) 도농복합도시와 농촌관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농촌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농촌 고령화 문제를 낮추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 이현복: 1) 농업의 가업승계 즉, 후계승계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규 가축 종사자 교육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신규 축산업종사자는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통해 가축등록 사용 승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축산 종사자의 집합 교육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안이 이러함에 부득이 교육이 어렵다면 가축등록 허가를 먼저 대행하고 후 교육조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가업승계가 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계가 어렵게 되는 현실이다. 또 축산 폐업시 세금 1억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지만 국세청과 농림부 부처 간에 이견이 달라 행정 처리가 제각각인 만큼 가업승계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조남상: 금화규는 본초강목에서 기재 된 바로 열을 치고, 피를 차갑게 하며 해독하고 소염 진통 효과를 주며 비장과 위에 효과가 탁월하며 또한 새살 돋는데 도움이 되고 소화불량, 식욕감퇴, 근육통, 면역력 높임 등에 효과가 좋고 그밖에 항암 효과와 노화방지, 혈압에 좋고 또한 안드로겐이 풍부하여 식물계의 비아그라라고 한다. 하지만 식약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가공이나 건강식품으로 판매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 장문호: 1) 잣 숲은 수도권역에 가장 소중한 허파임에도 불구하고 가평의 조림된 숲이 기후변화에 사려져 가고 있는 만큼 산림청이나 국가가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된다. 재선충 북방수염하늘소가 가평군 6개 읍면, 121리 중 52개리 지역에 벌목된 잣나무가 원목 반출이 금지되어 지역경제에 어려움에 처해있을 뿐더러 지역경제에 가평 잣 사업도 숲이 사라져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19년도 가평 잣은 기후변화에 3년 간 해걸이에 올해 수확을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재선충과 기후변화에 잣이 결실을 맺지 못 하고 수확을 못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잣은 2016년 이후 수확을 못 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평하면 잣이 대표 브랜드임에도 브랜드가 사라질 위기에 인접 지역을 살펴보았으나 역시 춘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원주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역시 잣 수확이 어려운 실정이다. 수확이 가능한 지역은 해발 900m 고지 이상인 인제, 정선, 태백, 백두대간 지역에서 채취된 잣이 있긴 한데 수매하는 값이 생산자가 요구하는 가격을 주어야 수매가 가능해 60~70만 원이었던 잣 값이 100만 원이 상으로 수매에도 어려움이 많다. 가평군은 가공 쪽으로 잣 산업을 살리지 못하면 가평은 위기에 처하게 되며 앞으로 재선충과 기후변화에 위기에 처한 소나무 재선충에 국가가 재난지역 선포를 하고 방재 및 예찰을 통해 국민의 신선한 자연환경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산림자원인 숲을 지켜 보존하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 김용덕: 1) 우리 지역은 도시개발수용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지가 없어진다.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토지를 대토해주는 것도 검토대상이라 생각한다. 우리 지역은 청년농업인들이 대다수임에도 청년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무조건 주택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이 올바른 일인지 모르겠다. 2) 농촌에 쓰레기 문제가 큰 핵심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도 폐비닐소각문제에서 시작한다. 농지가 시설하우스 단지로 된 곳은 쓰레기 수거 차량이 순회를 해서 수거해 처리해주었으면 한다. 3) 현재 뜨고 있는 스마트팜 자재 가격이 높아서 농가에 부담이 많다. 정책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임충빈: 1) ASF가 심각한 경기도 인근 충남지역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니 축산 농가가 많은 안성시는 걱정이 많다. 다행히 AI는 예방 접종과 방역, 깨끗한 축사 관리로 예방할 수 있지만, ASF 전염이 돼지이므로 야생멧돼지에 원인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일찍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야생멧돼지 포살에 미온적(심지어 반대)이라 그 피해가 잔존하고 앞으로의 대처에 양축농가는 큰 걱정이다. 멧돼지야 번식력이 좋아서 일부 지역에 몰살을 시켜도 복원이 2~3년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자연환경과 생태보존도 중요하지만, 고통받는 양축 농업인과 축산업의 소멸은 국가적 재난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환경부는 알아야 한다. 2) 가을 갈이와 논물 대기로 땅심을 높여야 한다. 지금은 친환경 농업, 저농약시대이므로 땅심을 높여서 병충해를 이겨내야 한다. 관행농법으로 적은 양의 농약, 되도록 저농약으로 PLS도 극복하면서 청정 농산물을 키워야 건강에 예민한 요즘의 소비자도 선호하고 같은 양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에 맞게 땅의 본래 기능을 찾는 일을 이번 겨울에는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지렁이를 비롯한 땅벌레들이 땅의 통기를 돕고 작물이 무사히 착근할 수 있고 영양분을 쉽게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지력을 높여야 한다. 그것은 풍화작용으로 땅의 공극을 넓혀 주고 부식작용을 원활하

게 하여주도록 공기를 주입시켜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을 같이(추경)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잘하여도 충분한 습기가 없으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흙이 알맞은 물기를 지탱할 수 있게 평소에 물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유기질 함유량이 많아진다. 3)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인력 감소에 따른 밭작물 재배의 기계화가 매우 필요하다. 기계 분야 기술발달로 밭갈이나 파종, 수확 등에 상당 부분 적용되고 있다. 영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앞으로 국가 시책으로 농기계, 농기구의 기계화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특히 작은 힘, 여성 농사꾼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소형화, 작업과정마다 기계화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귀농·귀촌하는 고령자에게도 환영받을 것이니 지역소멸을 예방할 것이다. 동영상에서 본 녹차 수확, 뿌리식물의 파종, 이랑과 고랑 만들기, 등등 기가 차게 잘 만들어서 쉽고 편안하게 농사일을 하는 것을 봤다. 우리도 지형과 여건에 맞는 기계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그래야 농업인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작업능률도 높아져 소득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 농업인 복지 차원에서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을 본래의 취지대로 육성해야 한다. 농수축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계절적 수급 균형이 조절되지 않고 저장성이 낮고 운반비가 과다한 단점이 많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계절상품인 과채류의 경우 이를 저장하는 기술과 설비도 필요하지만, 이를 1차 가공하고 농한기 등에 이를 2차 가공함으로써 계절적 인력 수급 안정과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 2차 가공은 수작업이 많이 소요되므로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의 인력을 활용하여 일손을 활용하면 몸을 움직여 운동하면서 용돈도 획득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므로 방안을 깊이 연구, 분석, 평가하면 적용 가능할 것이다. 연례행사로 양파, 마늘, 배추, 등등 과채류 수급에 곤란을 겪으면서 편리한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장단기 대책을 지역농협, 제도가공시설업체와 연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재배면적 조절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

으로 방안을 모색하여야만 장기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시군마다 '6차산업 제조가공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나 가동률이 지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그 지역의 제조가공업체와 연계시켜 판매와 마케팅을 공동 모색하여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 농협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나 역점 사업이라도 검토와 평가를 하여서 새로운 방안을 찾는 자세, 농업과 농촌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 문제는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이고 투자 대 효과, 예산 대 인구 등 정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농업은 산업이다. 경제이므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므로 정치와는 다른 시야가 필요하다. 6차산업은 앞으로 우리 농업을 지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므로 이를 시대에 맞게 재단하고 계획하여 나가야 할 일이다.

- 권순무: 1) 강화도 특산물인 순무는 특이하게도 강화도에서 재배되지 않으면 경도와 색, 고유의 맛과 향이 유지되지 않는 특이한 작물인 배추과 채소이다. 파종 시기는 8월 15~31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기이나 이 시기에는 가뭄이 심하거나, 태풍, 호우로 인해 파종한 것이 쓸려 내려가 3~5회 재파종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러한 연유로 재파종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추위로 인해 순무가 숙성되기도 전에 서둘러 수확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결과 순무의 품질이 떨어뜨리고 있다. 금년의 경우 8월 초 가뭄이 심하여 발아가 안 되어 다시 파종하고, 추석 때 호우와 태풍 링링이 닥쳐 심한 피해를 보게 되었으며, 경사지 밭이 경우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하여 3~4회 파종한 농가가 상당수였으며, 시설 농가의 경우 비닐이 날아가고 하우스 활대가 휘어지고, 망가진 사례가 많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 2) 강화 순무 산업화를 위해서는 첫째, 경제적인 노지작물 스마트팜을 개발하여 고품질 순무를 생산, 둘째 보존성을 높인 순무를 주년 공급할 수 있는 대형 저온 저장고가 필요한 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소된다면 급속한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노동력 절감을 가져다주고, 수요자에게 고품질 순무를 연중 공급할 수 있어 강화 순무의 위상을 높여주어 기능

성 채소인 순무의 인지도 향상으로 소비촉진에 좋은 결실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강화 순무는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 냉해를 입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고, 추위가 닥치면 재배 농가들은 포장에서 냉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보니 수확기 추위가 닥치게 되면 파종 시 번덕스러운 기후 관계로 늦게 심은 것이지만 바로 수확하여 저장하는 방법이나 싸게 팔아치우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강화도만의 고품질 순무를 만들기 위한 수확 후 관리 등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열악한 형편이다. 다음 해 2월경부터 저장했던 순무에 바람이 들고, 무르기 시작하여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어 추석 때까지 보관하며 판매 또는 가공을 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급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스마트팜 시설 확보로 고품질 순무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양중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 김만기: 1)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 양평군 농민단체에서는 10월 22일 양평군에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양평군청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향후 추진절차는 11월 8일까지 관계기관에서 법적 검토 후 승인되면 조례 제정 청구절차에 따라 양평군 유권자의 1/50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자필서명을 받을 수임인을 정하고 수임인승인을 받아 서명을 받게 된다. 서명인수가 충족되면 군청에 접수하면 의회에서 조례(안)제정을 의결하게 된다. 양평군의 경우 경영체 등록 농가 수가 약 7,400가구이고 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약 14,400명인데 1인당 월 50,000원을 지급하면 1년에 8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요구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농민수당 조례는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글로벌 시대 산업의 발달과 함께 국경 없이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농업생산기반이 무너질 때 우리는 강대국의 속국이 될 것이다. 2)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 임광혁: 1) 한국버섯 배지원료 공급센터(이하 KMR)는 그동안 버섯 배지원료의 수입 및 유통을 일부 무역상들에 의존하던 지난 방식의 문제점들을 혁파하고자 뜻있는 버섯재배 농업인 25명의 결의로 농림식품부로부터 보조 25억 원과 융자 15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0억 원의 사업을 교부 승인받아 지난해 3월에 착공하여 19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서 준공식을 하였다. 2) 농산부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다뤄지다 보니 농산부산물을 이용해 자가 TMR사료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선 농가들이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거나 ‘사료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어려움에 직면한 축산 농가가 일정 수준의 시설기준을 맞춰 ‘사료 제조업 등록’을 할 수는 없고, 결국 일일이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해야 하는데 생산 농가로서는 부담이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농산부산물을 이용하는 축산 농가의 경우 법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 농가가 농식품 부산물을 양성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는 것인데, 신고하기 위해선 갖춰야 할 서류가 만만치 않다. 농가가 부딪히는 행정적 번거로움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식품 부산물은 재활용 시 폐기물처리법령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표적 농식품부산물은 쌀겨, 전분박, 왕겨, 과일박, 두부박, 버섯배지, 제빵박, 볶짚, 과자박 등인데 현행 폐기물처리관련 법령은 농식품부산물을 폐기물로 간주해 현실과 괴리된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고, 특히 사료, 비료제조업체가 원료관리와 제품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중규제로 지목된 만큼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

2) 2020년 간담회 일정 계획

- 경기 가평시 장문호 회원 농가에서 2020년 6월 20일(토) 개최 예정

3. 이모저모

